

남들이 보기엔
저게 대체 뭘까 싶은 것에
즐겁게 몰두하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동경한다.
그리고 그들이 동경하는
하늘을, 자연을, 우주를 함께 동경한다.

심채경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중

당신도 별과 같은 삶을 동경하십니까. 스타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차원이 다른 멋진 인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니엘 12:3/현대인의 성경)

 전주동부교회

동넙

동넙은 전주동부교회가 이웃들을 향해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에스겔 43:2)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김 종 철 전주동부교회 담임목사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는 윤동주가 쓴 ‘십자가’입니다.

윤동주는 일제 강점기 만주에서 태어나,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9세의 짧은 일기로 생을 마친 비운의 천재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는 시대의 아픔, 민족의 아픔에 대해 괴로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비록 총과 칼로 일본에 대항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가진 문학적 재능과 감성으로 저항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자화상’이라는 작품에는 전쟁에 광분한 일본 군국주의의 발악 속에서 식민지의 백성이 겪어야 했던 고뇌와 갈등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가 없이는 백성도 없기에,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애쓴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나라와 집을 잃은 사람들이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뉴스를 듣고 있다면 저절로 탄식이 들립니다.

우리 역시 나라를 잃고, 형제끼리 싸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않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3·1독립만세운동부터 하나님 백성의 인권을 회복하는 운동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썼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폴 틸리히는 “종교는 문화의 본질이요,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와 문화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주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종교를 이해해야 합니다. 신흥중고등학교, 기전중고등학교, 예수병원, 전주대학교처럼 교육과 의료 등의 분야에서 기독교가 문화와 삶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더 좁게는 우리 지역에 끼친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괴로운 앞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고통스런 삶 속에서도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며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했던’ 윤동주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호국보훈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주 동쪽에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최순집은 마침내 뜻을 같이 하는 교우들을 규합한다. 1932년 가을 완주군 용진면 산정리(현 전주 덕진구 산정동)의 강주현 이자현 집사 집에서 최순집 박은혜 부부를 비롯한 여섯 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시작한다.

전주동부교회를 잉태한 기도처 행치마을

행치봉은 해발 245.2m 높이의 봉우리로 편백나무숲, 전주자연생태체험학습원, 각종 운동기구 등의 시설을 갖추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등산 코스이다. 꼭대기의 전망대에서는 아중저수지를 비롯한 전주 시내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인근지역 산불발생을 감시하는 초소도 세워져있다.

전주동부교회의 교회연혁에는 이들을 전주서문교회와 완산교회 교인들로 명시하고 있다. 실제 최순집과 박은혜는 당시 전주서문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일장신대에서 교회사를 강의하는 김천식 교수는 강주현 이자현 부부를 남문교회 교인으로 추정한다. 남문교회 연혁에는 “최국현 피택장로를 비롯하여 강경대 최삼열 김성녀 강주현 성성선 등 20여명이 중심이 되어 남문교회를 설립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강주현 집사의 집이 있던 행치마을은 현재 아중지구에 속한 동네이다. 마을 앞에는 아중역이, 뒤편에는 행치봉이 위치해있다. 비록 지금은 수십여 농가와 카페 등만 남아있는 조그만 동네이지만 바로 이곳이 오늘의 전주동부교회를 있게 한 기도처였던 셈이다.

아중역은 1981년 5월에 전라선 전주역과 신리역을 잇는 구간에 개설되어 운영되다, 이용객이 많지 않아 30년 만인 2011년 5월에 폐역이 됐다. 현재는 관광객들을 위한 레일바이크 시설이 운영되는 중이다.

행치마을에서의 기도모임이 시작된 지 1년 만인 1933년 가을, 마침내 여섯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다. 전주서문교회 공동의회가 전주동부교회를 분립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전주동부교회 90년 역사는 그렇게 개막되었다. | 정재영 기자



▲ 옛 아중역 부근인 전주시 산정동 행치마을은 동부교회의 첫 예배가 시작된 곳이다.

사랑과 정성으로 진료하는
우리가족 주치의!



푸른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남열** 집사 | 유선영 집사

김제 부영1차아파트 맞은편 T. 063) 542-7575

‘기도’라는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만난 이 정국필·백성연 부부

두 사람에게는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언제나 기도가 있었다. 기도하며 얻는 응답의 확신 그리고 평안함을 솔하게 경험했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살아간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그려왔던 바로 그 남자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만남이 더할수록, 대화를 나눌수록 그 신뢰가 더욱 깊어졌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요.” 정국필 집사와의 만남이 백성연 집사에게는 그러했다. 두 사람은 2002년 전주동부교회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반 리더와 조원으로 처음 알게 됐다. 시작은 백 집사의 일방적인 확신이었지만, 그 확신은 머지않아 서로가 공유하는 것이 되었다.

“총각시절 기도하는 배우자를 만나, 기도하는 가정을 이루어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예배 시간마다 계속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깨달았죠. 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 자매라고.” 그렇게 본격적인 교제가 시작됐고, 자연스럽게 결혼에 이르렀다. 모태신앙으로 전주동부교회 토박이인 정 집사나, 전북 장수에서 유치원 시절부터 쭉 믿음으로 자란 백 집사는 가치관에서부터 생활패턴까지 서로 통하는 게 많았다. 무엇보다 서로를 보며 배우는 게 적지 않았다.

남편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아내에게서 사람을 대하는 진심과 따뜻한 정성을 보며 감동했고, 아내는 여섯 살 위인 남편으로부터 사소한 일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발견하며 존경할 수 있었다.

보드게임 점포를 운영하며 이미 두 자녀까지 낳아 생활의 안정을 추구해나가야 했던 시절, 부부는 또 한 번의 인생 전환점을 맞는다. 정 집사가 3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에 다시 대학에 들어가 중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에 도전



한 것이다. 남편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야의 학업에 전념하는 동안, 아내는 가사와 자녀양육은 물론 집안 경제까지 책임져야 했다.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 또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확신 덕분이었죠. 감사하게도 주님이 순탄히 인도하셔서 남편은 지금 15년째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재직하고 있고, 저 역시 보육교사로서 자리를 잡아 생활하는 중입니다. 그 사이에 자녀도 하나 더 늘

어, 지금은 청소년기를 보내는 세 아이들과 함께 다섯 식구가 다복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처럼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인 정 집사가 밤낮없이 과로하다가 그만 심장에 병을 얻은 것이다. 얹힌 데 얹힌 격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심신을 더 힘들게 했다. 투병하며 보낸 지난 몇 년의 시간들은 그야말로 고통으로 점철됐다. 절망에 빠질 법도 했을 텐데, 당사자의 관점은 달랐다.

“저는 영적인 신호라고 여겼어요. 기도를 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저도 아내도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죠. 다행히 얼마 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가장 골치였던 문제를 일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평생 투약하며 살아가기는 해야지만, 몸 상태가 점점 호전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부부는 힘든 터널을 빠져나오기까지 함께 기도해 준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떠나본 적이 없는 전주동부교회도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우리 교회에는 끈끈한 저력이 있잖아요. 성공의 경험, 부흥의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그 자산들을 잘 살려서 다시 불꽃을 피워 올리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도 힘껏 섬기겠습니다.”

| 이현미 기자

교회의 미래가 전도에 앞장서다

중고등부 해피투게더 구원파티



전주동부교회 전도사역의 서막을 중고등부가 먼저 열었다. 중고등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6월 1일 샤론휴게소에서 해피투게더 구원파티를 개최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 이번 중고등부 전도행사는 큰 의미를 가졌다.

감사하게도 구원파티에는 22명의 아이들이 처음으로 교회문턱을 밟았다. 특히 목요전도를 통해 만난 전주동중

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지체들이 직접 인도한 친구들이 행사장을 찾아와 진정한 하늘잔치가 이루어졌다. 여전도회원들과 교사들이 준비한 푸짐한 음식들, 경품추첨 보물찾기 즉석사진촬영 등 갖가지 이벤트들도 파티의 흥을 돋우었다.

당초에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91명의 영혼들’로 목표를 세웠지만 단기간에 성취하려는 목표가 아니었던 만큼, 가까운 미래에 이 목표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중고등부는 기도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각오이다. | 정소연 기자

한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해요

상반기 새가족교육 수료식

2024년 상반기 새가족교육이 귀하고 귀한 여섯 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며 마무리됐다.

5월 19일 주일 2부 예배시간에 최명국, 이수화, 이예원, 김장중, 장귀남, 정희 등 여섯 명의 성도들이 전체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서 김종철 목사는 여섯 성도들 축복하며 수료증을 전달했고, 전도위원회에서는 화분을 선물하며 새 가족들을 환영했다. 하반기에



는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전주동부교회 한 가족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 이승은 기자

이토록 반갑고 행복한 만남

생애 첫 예배 나온 아기들

새 생명의 역사는 소중한 아기들의 탄생으로도 이루어진다.

4월 7일에는 나종국 목사 유경주 사모 가정에서 태어난 수겸(아들)이가, 5월 26일에는 412구역 송윤찬 조하니 집사 가정에서 태어난 쌍둥이 하윤(딸)과 하준(아들)이가 생애 첫 예배에 나왔다. | 윤미영 기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창 5:21~24)

2024년 하반기 부흥성회

2024. 7. 2(화) 저녁 ~ 7. 4(목) 저녁
(화·수·목 저녁 7시 30분 / 수·목 새벽 5시)



강사 | 이찬수 목사
(분당우리교회 담임)





나이가 늘수록 고민도 늘어납니다

성장기를 마치면 어느새 성인이 되어 스스로 삶을 꾸며, 본인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부모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연히 많은 문제들과 부딪치고, 해결해야 할 고민도 늘어납니다.

1. 신앙과 매일의 생활

바쁜 직장 생활에다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예배 참석이나, 기도와 성경읽기 등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자녀 신앙 교육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커집니다. 특히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교회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신앙적으로 의심과 의문이 짙어질 때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신앙을 나누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부 간의 신앙 갈등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신앙의 수준이나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가 다를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신앙적 배경을 가졌을 경우에는 의견차를 조율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솔직한 대화를 통해,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통의 신앙적 가치를 찾아서 부부가 함께 실천에 옮기거나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각종 봉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사회적 갈등

오늘날은 종교 문제에 대한 거부감이 커져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신앙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혜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신앙공동체를 통해 새 힘을 공급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5. 교회 내에서 역할과 소속감

나이가 들면서 교회 내에서 자신의 역할이나 소속감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자신이 처한 위치가 불안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때, 더 나아가 교회 내에 갈등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최조경 기자



‘위드유’ 부부모임을 소개합니다



■ 2024 주제 | 서로 세워주는 부부

전주동부교회 ‘위드유(With You)’ 모임은 부부 중 한 쪽이 45세 이하인 부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행복한 가정, 복 있는 가정을 이뤄가도록 격려하고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두 팀의 리더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0~40대의 청장년 부부들이 가정과 신앙면에서 주축 그룹으로 잘 성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젊은 부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모임시간 | 매월 1, 3주째 주일 오후 1시

■ 교역자 | 정유식 목사

■ 팀 리더 | 이기중/윤미영 집사, 최범석/이승은 집사

여행

김제 지평선 들녘을 채운 복음의 향기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모악산 자락 아래에 위치한 김제 금산교회로 찾아갔다. 우리나라에서 딱 두 곳에만 남은 ‘ㄱ’자 모양의 한옥예배당(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 136호)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그런데 이 교회의 자랑은 예배당뿐만 아니다. 120년에 가까운 유구한 역사, 그리고 교회를 시작한 조덕삼과 이자익이라는 인물들이 남긴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다.

이 동네에 복음이 들어올 당시, 큰 지주였던 조덕삼의 집에는 마부 이자익이 함께 살았다. 두 사람은 말을 타고 마을에 나타난 외국인 선교사에게 관심을 두었는데, 그의 정체는 바로 호남선교 선발대 7인 중 한 명인 테이트(한국명 최의덕) 선교사였다. 선교사와의 운명적 만남으로 두 사람은 기독교로 개종하고, 훗날 각각 장로와 목사로 서 한국교회에 위대한 기여를 한다.

특히 조덕삼은 자신의 수하에 있던 이자익이 먼저 장로로 선출되었음에도 기꺼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후에는 유광학교를 설립해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한다. 이자익은 조덕삼의 후원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후, 교단 총회장을 세 번이나 지내고 장로교 개혁헌법을 기초하는 역사적인 인물로 성장한다.

금산교회는 현재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2호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교회 초창기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귀중한 순례지에 꼭 방문해보기를 바란다.

김제의 동쪽 금산교회에서 시내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향해 가다보면 대창교회를 만난다. 군산선교의 개척자인 전킨 선교사에 의해 1903년 설립된 교회이다.

김제에서는 최초로 서양식 관악대를 조직했고, 동명학원과 야학을 세워 교육활동에 힘썼으며, 6·25 전쟁 중에는 안덕윤 목사 등 4명의 순교자를 배출하는 등 믿음의

근간이 되어준 교회이다.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38호, 순교사적지 제9호로 지정된 대창교회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뿌리 깊은 신앙유산을 보존한 역사관을 관람할 수 있다.

돌아오는 길에는 대창교회 지척에 조성된 아리랑문화마을 방문을 추천한다.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의 배경이 되는 일제강점기의 내촌외리마을, 여러 수탈기관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 현장인 하얼빈 역사 등 여러 볼거리들을 재현해 놓았다.

| 김형열 기자

<동녘>을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 김종철

편집인 : 안효건

제작팀 : 정재영(팀장)

김형열 윤미영 이승은 이현미 정소연 최조경

발행처 : 전주동부교회 전도위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88

전화 (063) 275-7760 홈페이지 www.cjdb.or.kr

<동녘> 제작을 후원하신 분들

구길수 김금자 김남기 김덕기 김미영 김숙희 김옥순 김은숙
김장중 김진숙 김효순 노명우 박선규 박영삼 소화수 안한성
안효건 은경옥 이동주 이복구 이승은 이정숙 이정희 이준례
이현미 이홍재 인정환 임선영 임순 전봉권 정소연 정숙자
정재영 진금자 최근수 최금이 최남열 최동욱 최범석 최순미
최원진 최조경 하기찬 (가나다순·2024년 6월 7일 현재)

전도편지 <동녘> 제작을 후원하실 분들은 1구좌당 5000원씩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계좌 > 카카오뱅크 3333-29-3293494 이현미

당신을 초대합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을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앞장서 이끌어주고, 평생 동행하며 힘이 되어줄 존재를
모든 인생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족, 친구,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진리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사랑, 그 진리를 따르는 이들이 모이는 생명공동체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에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고,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전주동부교회는 한국교회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중전주 노회 소속으로, 1933년 10월 15일에 설립되어 9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특히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는 공동체로서 정체성과, '학생교회'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다음세대 사역에 전념하여 큰 열매를 거둔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새벽예배		매 일 05:00		본당
주일 1부		일요일 09:00		본당
주일 2부		일요일 11:00		본당
찬양예배		일요일 15:00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19:30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20:30		본당
영유아부		일요일 11:00		교육관 1층
유치부		일요일 11:00		본당 지하 1층
유초등부		일요일 11:00		교육관 2층
중고등부		일요일 09:00		교육관 3층
대학청년부		일요일 13:00		본당 4층
부부모임		일요일 13:00		지정 장소

오시는 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대로 88 063) 275-7760

<동넙>은 전주동부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jdb.or.kr)와 네이버카페(cafe.naver.com/dongnyeok) 페이스북(www.facebook.com/groups/dongnyeok)을 통해서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전도대상자 발송, 구독소감, 후원, 이벤트 등의 문의는 네이버카페와 이메일(dong_nyeok@naver.com)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